

전체 주제: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 1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에 있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성경: 롬 5:10, 12, 14, 17-18, 21, 6:4, 9, 16, 21-23, 7:5, 10, 13, 24, 8:2, 6, 10-11, 38-39

I.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 준다.

- A. 이 두 핵심 단어, 곧 생명과 죽음은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생명(롬 5:10, 17-18, 21, 6:4, 22-23, 7:10, 8:2, 6, 10-11, 38-39)과 죽음(롬 5:12, 14, 17, 21, 6:9, 16, 21, 23, 7:5, 10, 13, 24, 8:2, 6, 38)은 5 장부터 8 장까지를 통하여 대조를 이루는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형성한다.
 - B.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 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나무를 버리고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하는 지식 나무를 추구했다 - 창 2:8-9, 17, 3:1-7.
 - C.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요 15:5),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게 한다(비교 창 3:5)..
 - D. 로마서 5 장에서 위법(롬 5:14), 범죄(롬 5:15-18, 20), 불순종(롬 5:19)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아담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담이 생명을 떠나 죽음을 택한 것으로 구성되었다(비교, 신 30:19-20).
 - E.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요 14:6 상, 11:25, 요일 1:2),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요 10:10 하).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요 12:24)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고전 15:45 하) 생명의 영의 법(롬 8:2)으로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의해 삼켜지도록 하신다(롬 8:10, 6, 11, 고후 5:4).
 - F.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죽음의 나무)는 두 노선, 곧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산출한다. 그 노선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친다. 생명은 생명나무(창 2:9)로 시작하고 생명나무(계 22:1-2)와 생명의 빛(계 21:23, 22:5)과 생명의 영광(계 21:10-11, 23)이 있는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친다. 죽음은 지식나무(창 2:17)로 시작하고 불못(계 20:10, 14)으로 마친다.
- 1.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계시 되신(갈 1:15-16 상, 롬 8:10) 것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처신하고 존재하는 것이다(빌 1:19-21 상, 요 6:57, 63).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고전 1:30),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롬 8:28-29)을 이루기 원하는 갈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고후 3:18)되어 그리스도와 철저히 하나되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표현하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함께 건축되는 길이다(고후 3:8-11, 4:6-7, 엡 3:21 상, 빌 3:21, 요 17:1, 4-5, 10, 22-24, 계 21:10-11, 23).
 - 2.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곧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산출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 - 벧후 1:1, 히 12:1-2 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 3.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아들이는 생명은 바로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후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

하.

4.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요 14:21, 23).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들을 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스런 임재 안에 저를 항상 지켜 주십시오.”(비교 아 1:1-4).
5.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적시시는 일, 우리 안으로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어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보여준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끈다 - 창 2:8-9, 3:24, 히 10:19-20, 계 22:14, 롬 4:22-24, 6:19, 22, 8:18-19, 21, 고전 1:30, 롬 5:5, 8:30-39, 요일 4:16-18.
6.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셨고 우리 속에 사랑을 발아시키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분과 모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8, 16, 19-21). 따라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모든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7.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다 -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내 사랑 없으니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사랑으로 사네”(영한동번 찬송가 546 장, 1 절). “다른 것을 사랑한 맘 결코 안식 못하리 주께 내 맘 드리고서 주만 사랑하리라”(영한동번 찬송가 547 장, 1 절).

II. 오늘 믿는 이들은 예덴 동산의 축소판으로서, 자신의 영 안에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신의 생각 안에 지식나무인 사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거나 아니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제 삼의 장소는 없다 - 롬 8:6.

A. 연합된 영, 곧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롬 8:16, 고전 6:17)에 의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1.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몸이다.
 - a. 사람의 몸은 원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이 자기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은 육체가 되었다 - 창 3:6, 롬 7:18 상.
 - b.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과 “죽음의 몸”(롬 7:24)이다. 죄의 몸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데 매우 활동적이며 강력하다. 그러나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는 데 약하며 무능하다(롬 7:18).
 - c.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 비교 8:23.
 - d. ‘육체’라는 말은 또한 타락한 우리의 온 존재를 가리킨다. 사람이 완전히 육체인 이유는 타락한 존재가 오늘 타락한 육체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이다 - 롬 3:20, 창 6:3 상, 빌 3:3-8.
2.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이며 복합체이다. 육체는 가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 없다 - 롬 7:17-18, 21, 비교 요 17:15.
 - a.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 롬 8:7-8.
 - b. 죄는 사탄 자신으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악’이다(요 17:15, 롬 7:21). ‘악’은 사탄 자신의 악한 생명과 본성과 특성이며 사탄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 c.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롬 7:11), 우리를 지배하고, 곧 우리를 다스리고(롬 6:12,

14),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행하도록 할 수 있다(롬 7:17, 20). 이 모든 활동들은 죄가 살아 있는 인격임을 보여준다.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해,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로 가득하며 추한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라심에 의해 그분의 건축을 위하여 그 영을 더 많이 얻게 하신다 - 골 2:19, 속 4:6.

1. 법리적으로 말할 때 사탄과 우리의 육체는 모두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유죄판결 받았다(롬 8:3, 요 3:14, 히 2:14, 고후 5: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빌 3:3) 돕기 위해 우리에게 육체가 남아있도록 허락하셨다.

2. 죄로 가득하며 추한 육체가 주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 필사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 롬 7:24-25, 8:2, 6, 13.

3.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열고 더 자원하여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 롬 8:28-29, 엡 5:27.

4. 우리가 그분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죄로 가득한 복합체마저도 우리가 주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영을 더 얻게 된다 - 비교 출 23:23, 29-30, 사 2:21-3:4.

5. 우리의 어려움과 패배와 실패와 실망은 우리가 육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육체는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억눌러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필사적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깨어서 영 안에 머물도록 지키는 면에 있어서만 좋을 뿐이다 - 마 26:41, 엡 6:17-18.

6.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지의 여부는 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을 관심하신다 - 빌 3:8, 고후 3:17-18.

C.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은혜로 복합된 놀라운 복합체이다 - 딤후 4:22, 롬 8:16, 갈 6:18.

1.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복합적인 영을 따라 행하기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영을 따라 처신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 롬 8:4, 빌 1:19, 고전 6:17, 비교 출 30:23-25.

2.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만이 지방 교회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방 교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 - 갈 5:16-26.

3. 로마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육체 안에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면 허무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롬 1:9, 7:6, 2:28-29, 8:4, 10, 13, 16, 12:11, 빌 3:3, 딤후 4:22.

4. 오늘 우리의 영은 참된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셋째 하늘, 지성소 안에 있으며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보존되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게 된다 - 엡 2:22, 창 28:12, 17, 19, 히 10:22 상, 4:16.

5.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질 수 없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높은 망대 안에 머무는 것이다 - 요일 5:4, 18, 요 3:6, 14:30.

III. 로마서 5 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로마서 6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로마서 7 장에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고 로마서 8 장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다. 5 장에 있는 아담은 7 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되고 6 장의 그리스도는 8 장의 영 안에서 체험된다.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상의 옮겨짐과 위치상의 옮겨짐을 갖는다 - 롬 6:3-8.

1. 아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인들로 조성시키는 죄를 물려받았다(롬 5:12 상, 19 상),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았는데 죽음은 한 면에서 우리를 약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린다(롬 5:12 하, 14 상, 17 상), 우리는 유죄판결을 물려받아서 율법 아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5:16 상).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과 의롭게 됨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 아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은혜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5:17 하, 18 하, 21.
- B.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롬 6:6, 갈 2:20)을 통해,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아담인) 육체에서 나와 그 영과의 하나(롬 8:16 상, 고전6:17)를 통해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인) 그 영 안으로의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옮겨짐을 갖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육체에서 나와 그 영 안으로의 이러한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옮겨짐을 체험한다.
1.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연합된 영에 둬으로써 생명과 평안에 이르러야 하고 육체가 아니라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처신함으로써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롬 8:4-6.
 2.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여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은혜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가 되시도록 해야 한다 - 히 4:16, 사 22:23, 마 8:8-10, 겔 1:22, 26.
 3.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는 임재로 채워져 그 임재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 생명 안에서 은혜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5:17 하, 21, 요 1:16.
- C. 이러한 두 가지 신성한 옮겨짐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단체적인 완결, 곧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과정을 거쳐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우주적인 합병체인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21:3, 9-10, 22, 22:17 상.